

이지상의 '여행과 삶'



여행에도 몰아친 디지털 물결

지난 1월에는 약 한 달간 태국 여행, 2월에는 2주일간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왔다. 늘 그렇듯이 자유 배낭여행으로 다녀왔는데 이번 여행에서 여행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디지털의 물결이 거셌다.

예를 들면 숙소.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에서 배낭 여행자들이 주로 묵는 게스트 하우스는 예약이 필요 없었다. 예약도 받아주지 않았고 그냥 가서 묵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킹 시스템을 이용해서 2, 3만 원 짜리 게스트 하우스는 물론 1만 원 미만의 도미토리조차 예약이 되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카드 번호만 적어 놓고 결제는 현장에서 직접 했다. 노쇼(no show)의 경우에만 카드에서 인출하는데 바가지요금을 씌운다거나 타무니 없는 인출도 없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또한 저가 항공의 시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비록 비좁고 비행시간 내내 불편하지만 싼 항공권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저가 항공이 아닌 경우도 미리 예매하면 엄청나게 싸다 보니 1년 전부터 항

공권을 사는 사람들도 보았다. 여행지나 여행 기간에 맞춰 항공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싼 항공권을 확보한 후, 거기에 자기 삶, 스케줄을 맞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지에 도착해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태국의 경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갈아 끼운 후 마음껏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 구글 지도를 보며 자신이 갈 곳을 안내 받는 가운데, 인터넷 카페나 SNS 및 블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동행자를 현지에서 만난다.

지금은 상식적이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낯선 풍경이다. 디지털 카메라가 휩쓸자 과거의 슬라이드 사진이 다 소용이 없게 된 것처럼 과거의 경험은 점점 쓸모가 없어진다. 베테랑 여행자가 무거운 가이드 북의 지도를 보고 이리저리 살펴볼 때, 초보 여행자들은 구글맵을 이용해서 거점 없이 나간다.

오키나와도 상황은 비슷했다. 모두들 저가 항공을 타고 가고 숙소도 미리 예약하고 왔다. 숙소만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를 통해 볼거리, 먹을 것 등에 대해 이미

흰하게 알고 있었다. 낯선 곳이지만 이미 낯선 곳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이미 인터넷 사진을 통해서 익숙한 거리를 거닐고 익숙한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런 여행은 더 편리하고 안락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단체 여행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자유 여행에서조차 모든 것이 미리 다 짜여 있으면 좀 답답해진다. 잘 보고, 잘 먹고, 잘 구경하는 관광에 머문다면 모르겠지만 예측 불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헤쳐 나가는 자유로운 여행의 재미가 적어진다. 고민하는 가운데 선택과 결단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인내하는 가운데 사람이 성장한다.

그래서 과거에 배낭여행은 젊은이들에 인생의 통과의례였으며 그런 여행을 통해 세상이 돌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또 여행을 마치고 나면 무궁무진한 애그거거가 생겼다. 이것이 고전적이며 아날로그적인 여행의 의미이자 보람이었다.

그런데 현대에는 정해진 궤도 안에서 싸게, 많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효율성의 원리가 여행에도 깊이 침투한 것이다.

디지털 여행의 장점은 많다.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편하고 안락하다. 정보가 다 열려 있으니 일부러 헤매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여행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결국 미리 준비하면서 실수할 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낯선 길, 불확실한 길을 헤쳐 나가는 도전정신은 점점 약해진다. 인터넷에 잘 알려진 곳만 가서 구경하고, 남들과 똑같이 먹고, 비슷한 인증 샷을 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획일성의 굴레 속에 갇혀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행 환경, 방법, 의식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디지털의 편리함을 취하되 답답한 궤도를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어렵긴 하지만 이런 추세 속에서도 새로운 여행 방법이 생성되고 있다고 믿는다. 삶에서든 여행에서든 아날로그적인 가치는 남아 보이지만, 미친 듯이 달려가는 속도 속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걸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 아닐까. <여행자가>

社說

김종인의 야권 통합 제안에 진정성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가 야권 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4·13 총선을 41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전격적인 제의다. 하지만 당장 국민의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서 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김 대표는 통합을 제안하면서 “야권이 총선 승리를 거두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많은 국민이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인 명분으로 삼았다. 옛 지도부의 잘못 때문에 더민주 탈당 의원 대다수가 당을 나갔지만 이전 그런 문제가 해소됐다는 논리도 곁들였다.

국민의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김 대표의 의도를 의심하며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야권분열을 조장했다는 책임을 안을 위험이 있지만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새정치’를

주장하며 창당을 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김 대표가 갑자기 통합 제안을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야권 통합의 대 명분을 살리는 한편 설사 이 제안이 실패해도 더민주 입장에서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 국민의당 쪽에서 야권의 확실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번 때려보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전략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 논의의 ‘정치적인 제스처’로 삼으려 한다면 곤란하다. 오는 24일 후보 등록 시작을 앞두고 일정이 빡빡한데 치고 빠지는 전술 차원이라면 되려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차라리 야권이 호남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수도권에서는 정당 간 지지도 조사를 통해 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전남까지 불통 수영계 비리 끝이 안 보인다

대한수영연맹 간부들의 비리가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수영연맹 간부가 선수에게 줘야 할 급여 등을 빼돌려 뒷선에 상당한 정황이 적발됐는가 하면 선수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와 훈련비 등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기야 불통은 전남으로 튀어 검찰이 전남 수영연맹 사무실과 전남체육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 대한수영연맹 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이던 이 모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씨는 전남수영연맹 소속 우수 선수 2명에게 연맹이 지원하기로 한 급여와 훈련비 등 국고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속한 전남수영연맹과 전남체육회 예산에서 일부를 유용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

해 목표의 전남수영연맹 사무실과 무안에 있는 전남체육회 사무실을 이날 오전 압수 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수영연맹 이사들로부터 역대 금품을 쟁긴 혐의(배임수재)로 연맹 정 모 전무이사를 구속한 바 있다. 정 씨는 연맹 고위간부 등으로부터 정경적으로 급여를 상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수영계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에 검찰에 구속된 정 전무는 이미 두 차례 국고지원금 횡령과 국가대표 선발전 비리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비리 당사자를 퇴출시키지 않고 연맹 간부로 놔둔 건 수영계의 비리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한다.

가장 퍼어플레이를 해야 할 스포츠계가 비리로 얼룩진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고강도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육계 역시 빠른 자정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고향 광주에서 개원한 이유



이 영균 서울 휴병원 원장

자료, 간병할 보호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병원비 못지 않게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수도권 진료시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척추질환자를 주로 보던 신경외과 의사인 탓에 원정 환자의 어려움을 다른 분야 의사보다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여차피 서울에서든, 고향에서든 척추질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이라면 지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결국 최근에 수도권에서 광주로 내려와 상무지구에 새롭게 병원을 개원했다.

전남의대를 졸업한 뒤, 곧바로 상경해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수도권의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열심히 한 탓인지, 적성에 맞았던 탓인지 의사들에게 시술법을 잘 가르친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다.

2015년에는 2차래에 걸쳐 태국 마히돌 국립대병원 정형외과의 초청을 받아, 8개국 50명 의사 앞에서 태국 환자 8명을 직접 집도하면서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를 교육했다. 태국 마히돌 국립의

대는 1888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태국의 서울대 의대인 셈이다.

또한 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병원들의 초청을 받아 비수술인 ‘코리빠 내시경 레이저’ 수술을 교육해 왔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의사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수술을 교육받기도 했다. 일반 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또한 직접 수술을 참관해 명성을 얻기도 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수도권 시장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것에 의아해 하며 묻는 분들이 많았다.

너무나 많은 이 지역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타지역으로 올라와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라고 답했다. 의사로서 경영상 위험을 안을 수도 있으나 고향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수술은 무조건 서울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져보지도 않고 막연히 서울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기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 의사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선의의 경쟁이 부족한 탓이며, 중국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2010년에 광주에 의원을 개원하고 3년간 진료했었다. 하지만 C형 간염환자의 디스크를 수술하는 도중 수술 바늘이 찔려 본인이 C형 간염에 걸리면서 건강이 악화돼, 의원을 폐업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갔었다.

건강을 회복하고 보니,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분들의 고통이 새삼 느껴졌고, 특히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러웠다.

의사들 간 선의의 경쟁은 지역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의가 있다. 상대를 깬다치고 공격하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지역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나아가 의사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고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사드 배치



문 현철 조선대 법학과 외래교수·협참 정책지문위원

단페쇄·사드배치 등 문제들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이는 따로따로 논의 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이다. 북한 정권은 여러 차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지도자의 불안한 리더십이 초래하는 모험적 군사도발주의가 결국 4번째 핵 탄두 장착실험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어졌다. 이는 우리정부가 과거처럼 일단 지원하고 교류하는 정책을 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

자급족 차단을 위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자위권적 군사적 조치로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요격할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보호를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둘째, 왜 개성공단을 중단해야만 하는가? 북한은 우리와 달리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 매우 단순하다. 달러 공급원은 개성공단, 해외근로자 노동, 해외식당 등의 수입과 경공업 제품과 석탄 등 지

하자원 수출이다. 그것으로도 충당이 되지 않는 외화수요는 불법무기와 마약류 판매 등으로 보충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수출입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들을 압박하여 핵 및 미사일 개발 비용 그리고 정권유지 비용과 호화물품 구매를 차단하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셋째, 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현실적 조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보강과 사드 배치다. 중국이 북한을 잘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바라보면 우리는 중국의 속내를 인식할 수 있었다.

넷째, 사드 배치가 미국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인가? 사드 배치문제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협업을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드

와 같은 무기를 개발 배치하려면 돌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국방세’라는 세금 항목을 만들어 세금을 더 걷든지, 국방비를 3배 이상 더 늘리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 만약 고고도 전략미사일을 자체 구매 배치한다면, 남한 전역을 커버하는 사드 4개 포대 비용으로 8~10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물론 북지관련 예산이 3분의 1로 깎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통해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사드 배치문제를 적극 추진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비용을 대는 꼴이 되며, 핵위협에 대해 국민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격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핵 도발을 무언으로 동의하는 부작위적 공범 꼴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취재 중 만났던 프랑스인 에르베 페조디에·한유미 부부에게서 얼마 전 이메일이 날아왔다.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자”며 전한 내용은 김 훈의 ‘현의 노래’ 출간 소식이었다.

부부 번역가인 두 사람은 3월 중 길리마르 출판사 ‘세계문학컬렉션’(Du monde entier) 시리즈를 통해 ‘현의 노래’(Le chant des cordes)를 출간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임권택 파리 회고전’에 맞춰 그의 102번째 영화‘화장’의 원작인 김 훈의 ‘화장’(En beaute)도 필히 피기에 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1919년 가스통 갈리마르가 창립한 갈리마르 출판사는 사르트르·카뮈 등 프랑스 대표 작가의 작품들을 내놓은 세계적인 출판사다. 장종 출신 이승우 작가의 ‘그곳이 어디든’과 ‘식물의 사생활’은 갈리마르의 또 다른 시리즈인 ‘폴리오’ 시리즈로 출간되기도 했다.

광주 출신 소설가 한 강희의 작품이 영미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다. 미국 호가드 출판사에서 펴낸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는 채식주의자가 된 주인공이 나무로 변하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국 포도벨로 출판사가 출간한 ‘소년이 온다’(Human Acts)는 ‘5월 광주’ 이야기를 담고 있어 더욱 관심이 간다. 외신에서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다룬 소설’이라는 평을 받은 이 작품은 5월항쟁이 진압된 후 시위대에 있었던 친구의 시신을 찾는 한 소년의 이야기다. 2014년 출간 당시 읽으면서 먹먹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에 나온 영문판 ‘소년이 온다’는 책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표지가 매우 강렬하다. 번역을 위해 직접 한글을 배운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는 광주항쟁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담은 서문을 따로 써 넣어 영어권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한다.

한 강희의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읽었을 때가 떠오른다. 소설가 한승원의 딸이라는 사실에 호기심이 일어 책을 들었다가, 작품에 놀라고, 작가가 어린 나이여서 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세계 속 한국 문학의 위상은 아직은 미미하다. 좋은 작품과 좋은 번역이 어우러져, 한국 소설이 해외 문학상도 받고 베스트셀러에도 오르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